

# “어디서나 쓴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추가

### 소비자 불만에 매출 30억 미만서 모든 주유소로 확대 정부 “유류비 부담 완화”...일반 국민 18일부터 지급

“이제라도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한시름 뉘셨습니까?”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가 추가되면서 광주·전남지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P’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착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책 시행 초기, 피해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지원금으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가맹 등록 주유소가 광주지역은 주유소·LPG충전소 전체 310개소 중 217개소(70%), 전남지역은 952개소 중 658개소(69.1%)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유소는 약 40% 수준에 그치며, 수도권에서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잇따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또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과 생색내기식 대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주유소 지자제 내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 시 피해지원금을 결제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이밖에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민들도 송풍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정모씨는 “차량 운행 중엔 맞춰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가는 곳마다 지원금을 쓸 수 없어 막막했다. 일부 기사들은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공유하기도 한다”면서 “정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작 고유가 지원금이라면 주유소에서 쓰지 못한다는 것에 답답했는데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거듭난 거 같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면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시민

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하는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대규모 민생 부양책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

지 목표로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최대 60만원)와 차상위계층(최대 50만원)에게 가장 두터운 혜택이 돌아간다.

일반 국민들은 오는 18일부터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차등화된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게 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가동 중기부·조달청 등 5곳 참여

정부가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을 검증하고 구매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SJ 컨스트럭처에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공공기관 실증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해외실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지원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우선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현장 실증을 지원한다. 1차로 로봇 분야에서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창업기업 20개 사와 협업한다.

이어 스마트시티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 과정에서는 협업 자금 지원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문기관이 과제 수행을 돕는다.

실증에 성공한 기업에는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 평가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과 공공구매 상담회 참여를 통해 추가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사 내 물품 배송·운반 로봇을 도입해 직접 실증과 구매를 진행하고, 향후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에서도 추가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

## 전남테크노파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국내 앵커기업 등 협약 체결

전남테크노파크가 국내 로봇 앵커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내 로봇앵커기업 5개사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각 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남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전남의 넓은 산업부지, 풍부한 전력과 우수 인프라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선·에너지·농수산 등 지역 주력산업에 첨단 로봇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은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피지컬 AI 로봇기술의 실증과 확산이 가능한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업화까지 로봇산업 전주기를 통해 새로운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은 로봇산업 전 과정 지원, 지능형 로봇 분야 신규 사업 공동 발굴, 개발 로봇기술 산업 현장 적용 및 보급 확대 등에 대해 협력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산업현장 로봇 실증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유망 로봇기업 유치 및 특화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로봇산업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내 로봇앵커기업 5개사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통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실질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며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축이다”며 “이번 앵커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GICON, 어린이날 맞이 ‘ACC 하우편12’ 동참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성과물 시민에 공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 12’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성과물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는 ‘CG 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과 실감기술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제

형용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으로 구성된다.

GICON은 이번 행사에서 ‘애니 플레이 존’을 운영하며, ㈜공감미디어, ㈜위지스, ㈜아토모스가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 IP를 활용한 전시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감미디어의 웹툰 ‘마교일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활쏘기 게임 △위지스의 AI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 얼굴을 반 고흐 화풍으로 재해석하는 참여형 미디어아트 △㈜아토모스가 애니메이션 IP(㈜핑고엔터테인먼트 ‘사사&마일로’, ㈜스튜디오버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Z’)를 활용해 선보이는 홀로그램 활용 및 AR(증강현실) 포토카드 제작 체험 등이 마련된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하우편 12’ 참여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IP를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 사례”라며 “앞으로도 IP 기반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확산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